

주검 대신 문화 싣고 다시 등장한 '오월수레'

주목! 5·18 이 행사

오월길문화기획단 '달콤'

5·18 사적지 5곳 5.18km

예술가 등 40여명 수레 끌며

공연·퍼포먼스... 온라인 중계도

'오월 수레'가 40주만에 다시 광주시 금남로 도로 위에 모습을 드러낸다.

1980년 5월20일, 시민군들이 광주역에서 총을 맞고 숨진 2명의 주검을 수레에 싣고 금남로를 지나 전남도청 앞으로 이동하며 계엄군의 만행을 시민들에게 알렸던 수레가 예술로 승화돼 40년 만에 시민들 앞에 나타난다.

6일 '오월길문화기획단 달콤' (이하 '달콤')에 따르면 광주 지역출신 예술가(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들이 5·18 항쟁 40주년을 맞아, 오는 23일 수레를 끌며 5·18 사적지 5곳 5.18km를 도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달콤은 40주년을 맞아 지역출신 예술가 20여 명을 비롯해 유튜브 촬영팀, 스태프 등 총 40명이 수레를 끌며 오월길을 누비는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동하며 관람할 수 있는 형태의 '이동형 공연'과 실제 일어난 장소에서 펼쳐지는 '장소특성형' 무대를 구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인데, 이 행사는 5·18민중항쟁위원회에 달콤측이 국민아이디어로 신청해 선정된 것이다.

57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달콤은 4개의 퍼포먼스 팀을 구성해 5개의 사적지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가로720mm·세로1050mm·높이600mm크기의 손수레를 구입해 이동식 음향과 퍼포먼스 현수막 등을 이용해 시민들과 공감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달콤은 광주정신이 퇴색해가는 현재, 오월길 위에서 5·18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미래세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로 승화시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5·18민중항쟁운동의 불씨가 된 전대 정문에서 30분간 퓨전 국악밴드의 통기타 공연을 연 뒤, 광주역으로 향한다.

1980년 5·18민중항쟁운동 당시 광주시민과 계엄군 사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져 2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역에서는 수레에 그래피티(낙서처럼 굵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로 도로인공연을 벌인다.

이후 옛 버스터미널이 있던 대인지하차도로 이동해 계엄군의 과잉진압을 알리기 위함을 무릎 쓰고 시외로 나갔던 사람들, 그들에 의해 5·18이 전남 전역으로 알려진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마술 공연을 펼친다.

잠시간의 휴식을 거친 뒤, 대인지하차도로 이동해 5·18당시 나눈 상자인 주먹밥을 직접 만들고 나눠 줬던 나눔정신을 기념할 K-POP공연을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금남로를 거쳐 5·18 민주광

장으로 옮겨 오후 5시18분 도청에서 울려 퍼지는 '입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퍼포먼스를 벌이고 묵념으로 모든 행사를 마무리한다.

모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이날 행사에 사용한 손수레를 파지를 줌 등 생활이 힘든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를 기획한 김상훈씨는 "40주년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행사의 실행여부가 마지막까지 결정되지 않아 준비 자체가 어려웠다"면서 "결국 유튜브로 행사를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지만,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수단체 집회 막아선 오월단체

6일 오후 5·18기념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려던 보수단체 회원에게 한 시민이 섯대질을 하며 항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교육청 등교개학 준비 박차

13일 고3부터 순차적 등교

확진자 발생 대처 모의훈련도

'코로나19' 사태로 두 달 넘게 미뤄졌던 전국 학교의 등교수업이 오는 13일 고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광주·전남 교육당국도 등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13일 광주지역 68개 학교 고3 학생 1만 4826명과 전남지역 고교 고3·전교생 60명 이하 초·중학교 365개교 학생 등 2만 6942명이 등교한다.

광주시교육청은 개학 준비 지원단을 등교수업 지원 체제로 변경해 원격·등교수업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무학사, 감염병 관리, 급식 운영 등 분야별로 코로나19 대응 학교 운영 지침을 보완해 학교에서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학급별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각 교실마다 책

상 거리두기를 완료해 등교수업에서도 질병관리본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3은 물론 전교생 60명 이하 초·중학교까지 등교하는 전남교육청의 등교 준비는 더욱 바빠지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유치원을 포함한 지역 951개 학교에 '일시적 관찰실'을 설치하고 특별 방역소독을 완료한 상태다.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체온계도 구비하는 등 안전한 등교수업에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앞서 등교 개학 후 학교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총 4단계로 나눠 대처요령을 익히는 방식으로 영상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선이공대와 광주보건대 등 실험·실습 과목이 필수인 전문대학의 일부 학과들은 6일 대면수업에 들어갔으며, 4년제 대학들은 실험·실습이 필요한 학과들은 단계적으로 대면수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고3 개학 다음날 학력평가...사실상 첫 수능 모의고사

전국 고등학교 3학년은 올해 첫 등교 이틀만인 14일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를 치르게 됐다.

이번 학평은 고3만을 대상으로 하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 등 5개 영역을 평가한다.

4월 학평은 본래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지난달 8일 치러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지난달 28일로 변경됐다가 지난 7일로, 다시 12일로 계속 미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3월 학평은 지

난달 24일 성적 산출 없이 재택에서 시험지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고3에게는 4월 학평이 처음으로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인 셈이다.

이번 학평 주관 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의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일정이 다시 변경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개학이 13일로 연기된 데 따른 조치"라면서 "각급 학교에 방역 관련 지침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차질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환경보호 메시지 담아...재활용 쓰레기통의 변신

광주 동구 카페거리 시범 설치 북극곰·빙하 형형색색 형상화 주민·상인 "저리 산뜻해졌다"

광주시 동구는 젊은이들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동명동 '카페거리'에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자인된 재활용 쓰레기통(사진)을 시범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치된 재활용 쓰레기통은 형형색색의 북극곰과 빙하를 형상화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는 북극곰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동구는 설명했다.

쓰레기통 설치 이후 동명동거리가 골라보게 산뜻해졌다든 시민과 주변 상인들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을 겸비한 재활용쓰레기통은 동명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동시에 문화도시 동구의 거리미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의 호응도를 분석해 디자인과 상징성이 가미된 쓰레기통 설치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행복자 가족 혈액

광주시 채취 신청 접수

광주시는 "5·18 행복불명자 가족의 혈액 채취 신청을 29일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19일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이 다수 발견되고 행복자 가족의 DNA를 확보하려 올해 2월 3일부터 혈액 채취 신청을 받아왔다. 현재까지 18명이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5·18 행복자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 모계 가족이다.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광주시 5·18 선양과(613-1350)로 하면된다. 행복자 가족 혈액은 발굴 유골과 유전자 정보를 비교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교육청 '학생 진로카드' 일선 고교 배포

과목 선택·교육과정 정보 담아

광주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카드형 과목 안내 자료를 제작, 일선 고등학교에 보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과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나의 미래 나의 진로카드(이하 미로카드)'를 제작, 국·공·사립 60여 고등학교에 배포했다.

미로카드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이미지가 있는 48장의 카드로 구성됐다. 고 1·2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설정한 뒤 2·3학년 과목을 선택, 개인별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 학생들의 관심과 적성 등을 고려해 진로 탐색

과 그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설계도 지원한다.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시간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로카드는 진로에 따른 전공별 과목선택 가이드 역할도 하게 된다. 학과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고, 선택 과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총 2부로 구성했다.

1부는 대학 전공을 17개 계열로 나눠 각 전공별 필요역량, 대학전공별 일반·진로선택 과목, 관련 학과와 진출 직업 등을 소개했다. 2부는 2·3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될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교과과의 일반·진로선택 과목별 특성, 과목별 내용체계, 각 과목과 관련 있는 학과와 직업 등을 안내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